

# 삼성 vs LG, 청정 솔루션 대결 펼친다

15일까지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 2019' 참가  
시스템에어컨·공간 맞춤형 환기시스템 '맞벌'

국내 대표 전자 기기 업체인 삼성과 LG가 국내 최대 공조 전시회에서 청정 솔루션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HARFKO) 2019'에 나란히 참가해 공조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해당 행사는 전 세계 28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 공조 전시회로 약 2만6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은 시스템에어컨 등을 LG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실내기와 공간 맞춤형 환기 시스템을 내놓았다.

### ◇ 삼성, 시스템에어컨 등 강력한 청정 기능 '눈길'

삼성전자가 선보이는 시스템에어컨 360·1Way·4Way 카세트는 PM1.0 필터가 탑재된 공기청정 패널을 적용할 수 있어 0.3마이크로미터(μm) 크기의 미세한 먼지까지 강력하고 빠르게 제거가 가능하다. PM 1.0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μm(1천분의 1mm) 이하인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미세한 먼지를 말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4Way 카세트용 공기청정 패널은 고급형 유선 리모컨의 유동형 컬러 디스플레이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 등 실내 공기질과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 실내 청정도를 간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다. 이외 삼성전자는 쾌적하고 경제적으로 실내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환기시스템인 전열교환기(ERV·Energy Recovery Ventilator)도 전시했다.

해당 제품은 배기구와 흡입구가 구분된 양방향 환기 시스템으로 오염원이 재유입되지 않아 환기 효과가 뛰어나다.

또 외부로 배출되는 실내 공기의 열에너지를 유입되는 실외 공기로 전달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스탠드형, 벽걸이형, 1Way·4Way 카세트형 '무풍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삼성 큐브'에 이르기까지 '무풍 풀 라인업'을 대거 선보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변화와 IoT 기술의 대중화로 국내 공조 시장도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무풍으로 대표되는 차별화된 성능은 물론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조 솔루션을 제공해 시장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 LG, 공간 맞춤형 솔루션으로 '맞벌'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 중 가장 넓은 45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LG는 인공지능 스마트기류 실내기와 공간별 맞춤형 솔루션, 비컨(Building Energy Control) 등을 소개했다.

듀얼 베인과 스마트 기능을 적용시킨 인공지능 스마트기류 실내기는 기존 천장



LG전자는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HARFKO) 2019'에 참여하는 업체 중 가장 넓은 450㎡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스마트기류 실내기, 공간별 맞춤형 솔루션, 비컨(BECON) 등을 선보인다.

형 실내기에 설치된 4개 조절 장치와는 별도로 내부에 4개의 조절 장치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8개의 베인을 사용해 바람을 정밀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다이나믹바람, 듀얼오 토스윙바람, 간접바람 등 6가지 바람모드를 지원한다.

더불어 LG전자는 주거·사무·교육·산업·상업 등 8개의 공간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였다.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주거 공간에 최적화된 멀티비이 에스(Multi V S), 사무 공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멀티비이 슈퍼5(Multi V Super 5), 조용한 환경이 필수인 교육 공간을 위해 개발된 바닥상치형 환기시스템

등이 그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이 깨끗한 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공기청정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상업 공간에서 사용하는 원형·4방향 등 다양한 카세트의 전정형 실내기는 PM 1.0의 극초미세먼지, 냄새, 대장균까지 제거해주는 5단계 공기청정 시스템을 탑재해 공간을 쾌적하게 해주는 이점이 있다.

또 교육 공간 솔루션은 PM 1.0 센서를 탑재한 것은 물론이고 공기청정 면적을 대폭 늘렸다.

최대 158㎡(약 47.9평)까지 청정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초등학교 교실 2개 면적에 해당한다.

이외 사무 공간 솔루션은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실내 환기 시스템과 고성능 필터를 적용해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LG는 호텔, 사무실, 대형 사업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컨도 내놓았다. 각 공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해당 상품은 사용자가 공간별 에너지 수요량과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고 사용량을 관리해 에너지 절감도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종합 공조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25일 스페셜 이벤트 개최  
TV·아이패드 새 버전 선보일듯

애플이 오는 25일 오전 10시(미서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스페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미국 IT·경제매체들은 애플이 새로운 스트리밍 TV 서비스와 뉴스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스트리밍 TV는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에게 쇼타임 등 일부 채널을 공짜로 시청하는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나 훌루 같은 대형 스트리밍 기업과 전면적으로 제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뉴스 서비스는 '번들형 구매'로 10달러 안팎의 월정액을 내면 프리미엄 뉴스 사이트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를 제한없이 볼 수 있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넷플릭스형 뉴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애플은 또 새 제품을 내놓은 지 약 1년 지난 아이패드의 신버전을 선보일 전망이다.

애플 전문가 귀머치 TF증권 애널리스트는 9.7인치 아이패드 스탠드 모델을 대체할 10.2인치 아이패드를 발표할 것으로 점쳤다.

KT, 기가인터넷 '500만명' 돌파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23% 차지

KT는 기가인터넷 가입자가 출시 53개월 만에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신 3사의 기가인터넷 가입자 점유율은 약 58%, 국내 전체 인터넷 이용자(작년 말 기준 2천130만명)의 23%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KT는 전국 57%에 구축된 광시설(FTTH-R)을 바탕으로 이러한 실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KT는 가입자 500만명 돌파를 기념해 10기가(GiGA) 인터넷에 가입한 방송크리에이터 BJ보겸에게 10GiGA 1년 무료 이용권과 10GiGA 전용 노트북을 제공했다.

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로 활동하는 BJ보겸은 "동영상을 올릴 때 느리고 답답했는데, 10GiGA 인터넷을 사용하니 확실히 빠른 속도를 체감해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 넥슨, 상반기 모바일게임 10여종 쏟아낸다

'크아' 21일 출시... "회사 외부 환경, 개발 일정에 영향 없어"

넥슨이 상반기 모바일게임을 10종 넘게 쏟아낸다. 기존 자사 인기 온라인 게임을 모바일로 재해석한 게임과 신규 IP(지식재산권) 게임을 함께 발표했다.

넥슨은 12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크레이지 아케이드 BnB'를 이달 21일 국내 및 글로벌 출시한다고 밝혔다.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BnB는 넥슨의 대

표 온라인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모바일로 옮긴 캐주얼 게임이다. 상대방을 물풍선에 가둬 터뜨리는 등 원작의 재미 요소를 그대로 구현했다.

원작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게임 '바람의 나라: 연'도 올여름 출시된다.

이외에도 신규 IP, 해외 유명 IP를 활용한 게임도 다수 출격을 앞뒀다.

영웅을 수집하고 성장시키는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윈: 더 라이브링 어'는 이달 14일 출시된다. 넥슨은 슈퍼에시드가 개발한 액션 RPG '마기아: 카르마 사가'도 이날 공개하고 상반기 중 국내, 글로벌 출시한다고 예고했다.

일본 토호주식회사의 '고질라' IP를 활용한 '고질라 디펜스 포스'는 오는 5월 국내 출시된다. 네오폴 '스튜디오42'의 신

작이다. 유저는 세계 주요 도시에 등장한 역대 고질라 시리즈의 괴수 100여종을 상대로 기지를 건설하고 강화해 도시를 방어한다.

일본에서 인기리에 서비스 중인 RPG '시노엘리스'도 올해 상반기 중 국내 및 글로벌에서 선보이기로 했다.

국내 인기게임의 글로벌 진출도 확대된다.

'야생의 땅: 듀랑고'는 상반기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전역에서 서비스를 진행한다. '오버히트'는 상반기 내 150여 개국에서 사전예약 및 출시에 돌입하고, 메이플스토리M은 4월 일본 시장에 출시된다.

넥슨은 앞서 올해 1월 17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스피릿위시를 시작으로 '다크어벤저 크로스'(2월 13일 일본 출시), '런닝맨 히어로즈'(2월 21일 출시), '런웨이 스토리'(3월 6일 출시) 등 4종의 게임을 출시했다.

상반기 출시해 외 진출하는 모바일게임만 14종이다. 넥슨은 많은 타이틀을 출시하지만 다양한 유저 풀과 장르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일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 넥슨 부사장은 이날 "넥슨만의 경쟁력을 증명하는 다양성을 갖춘 모바일게임을 대거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장르를 넘어 도전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토의 실핏줄  
생각을 살립니다